

# 충북대학교국책대학지정건의(안)

의안 번호	357
----------	-----

제안년월일 : 1994. 7. 9.

제안자 : 교육사회위원장

## 1. 주 문

지역산업과 연계된 고급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과학기술산업에 부응하는 연구개발능력을 높이고자 충북대학교를 국책대학으로 지정 해주도록 중앙부처에 건의코자 함.

## 2. 제 안 이 유

- 양대 고속도로, 경부고속전철, 청주 신공항 건설, 내륙 컨테이너기지 건설 등 지역발전 잠재요소가 풍부하고
-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의 본격착수 및 청주 - 제천을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축 등 첨단기술산업 육성책에 따라
- 충북대학교가 국책대학으로 지정되게 되면 산업체가 필요로하는 국제적 경쟁력을 지닌 양질의 산업인력 공급은 물론 충북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3. 참 고 사 항

건의(안): 별 첨

## 충북대학교 국책대학지정 건의(안)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에서 민의를 받들어 국정수행에 혼신을 다하느라

바쁘신 [ 교육부 장관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청와대교문수석  
민자당정책위의장  
민주당정책위의장 ] 님께, 국책대학 지정에 즈음하여 충북대학교의

국책대학 지정 당위성에 대한 충북도민의 입장을 몇가지로 요약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낙후되어 왔던 우리 지역이 이제는 청주 신산업기술도시, 고속전철역, 공항 등의 유치와 기존 양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한 내륙 컨테이너기지 건설에 따른 발전 잠재력 증대로 충북대학은 전국 어느 대학보다 국책대학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에서는 이미 11개에 달하는 반도체와 정보산업 분야의 학과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과대학 교수진의 79%가 30~40대로서 최근 3년동안 수탁과제가 전국대학 평균의 약 3배에 이르는 등 왕성한 연구실적을 올리고 있고

지역소재 산업체 및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반도체, 정보공학 분야의 제2캠퍼스와 산학연 공동 기술연구원을 청주 신산업기술도시내에 설립할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상태로서 충북대학의 국책대학 지원금에 대한 예상 대응투자액은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고있습니다.

둘째,

충북대학교가 중점 육성분야로 선정한 반도체, 정보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국가주력 산업이며 미래지향적 첨단산업으로서 우리나라 반도체·정보산업 관련업체의 40%가 중부권에 입지하여 총수출액중 30%를 감당하고 있고

특히 청주권에는 전국적 규모의 반도체·정보산업 지대가 형성되어 충북이 충청도의 61%를 차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균형 투자 차원에서라도 충북대학교에 대한 배려가 요청됩니다.

그동안 충북대학교와 충청북도에 대한 정부투자는 매우 빈약하여 충북지역은 피해의식 내지 상대적 빈곤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은 '93 세계박람회에 3,655억원이 투자되었고, 대덕연구단지 '93년까지 투자된것만 해도 총납대 554억원, 과기대 1,192억원등 9,100억원이며

충남대 공학계열은 연구단지내에 입주 집중육성중이므로 신소재 정밀화학  
분야의 충남대학교는 대덕연구단지와 연계하므로서 가능할 것이므로  
지역균형 투자 차원에서도 충북대학교에 대한 국책지원이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전 도민의 간절한 소망을 모아 건의드리오니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어  
반드시 충북대학교가 국책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 7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